

고 무리없이 날마다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연령에 따라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젊을 때에는 야구나 축구 등 힘든 운동도 부담이 되지 않으나 중고령에 이르면 신체에 장해를 초래할 때도 있다. 테니스나 골프, 수영 등은 비교적 높은 연령까지 즐길 수가 있다.

기업에서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및

장소를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이며 산보는 유아부터 정년후 노인까지 자신의 규칙생활에 맞춰 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에리베이타를 사용하던 것을 계단을 이용하고 버스 한정거장 정도를 걷는다는 일은 마음 먹으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이다. 운동습관은 일시적 기분에서 붙는 것이 아니며 인생에 있어서 함께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 전국 직원체련대회 개최예정

제 2회 전국직원체련대회가 9.30 ~ 10.2. (3일간) 전북 무주군 안성면 소재 자연학습원에서 개최예정이다. 동 대회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한편 그동안 근로자 건강관리에 일념하는 과정에서 자칫 자신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데 대한 점검기회로서 유격훈련과정도 포함될 계획이며, 뿐만 아니라 유희 일변도의 행사를 탈피하기 위해 외부인사 초빙의 교양강좌를 비롯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놓고 업무별 분임토의도 가질 예정이다.

## 사무국장 회의 개최

전국 사무국장회의가 8.28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금년 1~8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중간평가와 하반기 전망 및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최병수 전무이사는 사업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향상에 강조를 하면서 전산화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기본적 정보자료관리에 일선국장들은 최대의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고 아울러 중앙 분석실을 운영함에 있어 분석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부에서 의뢰하는 시료(검진, 측정)의 신선도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강조하였다.

## 충북지부, 건물 신축부지 매입

충북지부(지부장 김락형)는 자체회관 건립을 위해 청주공단내에 대지 240평을 청주시로부터 불하받아 90년도에 착공할 예정이다. 동 계획은 곧 실행이사회에 상정 확정되는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 협회 부산지부 이동영 산업위생과장이 산업 위생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 지난 7월 수재로 인하여 전남지부 소속 직원들이 많은 수해를 입음에 따라 본부 및 전 지부가 성금을 보내고 위로를 하였다.

■ 협회 전북지부 류인홍 사무국장 부인인 김재림 여사가 향년 53세를 일기로 89.8.9.15: 20에 별세하셨다.

## 산업보건계 소식

●…… 협회 직업병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승한 교수(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 산업의학센터 소장)는 8월 26일에 캐나다 IDRC의 협조로 Indonesia의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를 방문하여 진폐증 연구에 대한 연구자문을 해주기 위해 출국 하였으며 9월 4일 귀국할 예정이다.

●……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장이신 김준연 교수는 7.31~8.18간 동아의대와 현지 의과대학과의 자매결연 및 연구지원방안을 협의차 일본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하였다.

김준연교수는 7.31~8.2에 일본 후쿠오카 대학을 방문, 동아의대와의 자매결연을 협의한 데 이어 8.3~8.18에는 미국 Texas 의학재단의 초청으로 L.A, Texas., N.Y., Boston의 각 의과대학 및 의료원, 연구소 등을 방문하고 교수 및 학생 상호 학술교류, 각종 연구지원방안을 협의하였다.

●…… 동아의과대학 학술지 창간호가 지난 6.31에 발간되었다. 창간호에 실린 동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논문으로는 “Blood Zinc Porphyrin Levels as a Biological Indicator or Lead Exposure” (저자:김정만·김준영)와 “울산과 양산지역의 산업재해 발생빈도에 대한 역학적 조사”(저자: 김준연, 정갑열, 김정만 외 4인) 그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한편 동 교실에서는 현재 사무실, 식당, 다방 등 각 업소별 실내의 NO<sub>2</sub> 농도 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각 직종별 NO<sub>2</sub> 개인 폭로량 산정에 대하여 경북의대, 경상의대, 원광의대예방의학교실과 함께 공동연구 진행 중이다.

